

[특집논문]

다원주의 사회와의 선교적 대면*

신국원**

논문초록

우리시대에 들어 세계의 사회문화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는 글로벌 다원주의 문화는 기독교 신앙과 특히 선교에도 매우 복잡한 도전을 가져온다. 하지만 지난 2000년동안 다양한 문화 속에 복음을 전한 경험을 가진 기독교는 이미 그와 흡사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오랜 선교적 경험에서 축적된 문화적 통찰과 지혜가 오늘의 전지구적 다원주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도전에 대처함에 자원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시대의 다원주의와 “선교적 대면”을 함께 그 지혜를 새롭게 되살려 내는 것이 관건임을 보임에 있다. 그 지혜의 복원에는 기독교 세계관 전통의 지혜가 근래에 부상한 “선교적 교회론”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이른바 다원주의 문화에 대한 효과적인 선교적 만남을 이루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다원주의, 선교적 관점, 기독교 세계관, 시민적 교양, 기독교 학문

* 이 논문은 2015년 5월 30일 평택대학교에서 개최한 기독교학문연구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 학문”의 주제 발표된 논문으로 수정 보완한 특집논문이다.

** 충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I. 서론

지난 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글로벌 다원주의 문화는 전 세계의 사회적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그 변화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보다 넓고 깊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에 성격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글로벌 다원주의 상황은 기독교 입장에서선 생소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초대교회 이래 수많은 문화들과 시대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비슷한 상황을 무수히 겪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계관이 충돌하며 각축을 벌이는 지금이야말로 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가 빛을 발할 때이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시대의 다원주의를 대치함에 그 지혜를 새롭게 되살려 내는 것이 관건이라 보고 근래에 부상한 “선교적 교회론”이 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있다.

II. 글로벌 다원주의 문화의 역설

글로벌 다원주의 문화 밑에는 오랜 역사적 상황이 깔려있다. 물론 직접적 원인은 근대 계몽주의의 실패다. 16세기 종교개혁 후 유럽에선 신구교파들이 백 년 넘게 무력으로 충돌하는 전례없는 종교다원적 상황이 벌어졌다. 종교적 갈등은 때맞춰 일어나던 민족국가의 정치-경제적 이해 충돌과 맞물려 걷잡을수 없게 증폭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천년 넘게 유지되어온 크리스텐덤이 종교적이며 이념적 전쟁터로 바뀌고 말았다.

근대는 이 참극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태동했다. 근대정신의 핵이요 열매인 계몽사상은 이성을 토대 삼아 평화를 담보하려던 야심찬 기획이었다. 그것은 이성의 중립성과 객관적 보편성이 종교, 사회, 정치, 문화적 다원성에서 야기된 분열과 갈등 위기 해결의 기초라고 믿었다. 이는 근대초기에 “이성이 우리의 최종적 권위요 모든 일에 있어 인도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 존 로크의 말이 잘 드러난다. (Locke, 1964: 432) 그를 위시해 수많은 근대 사상가들은 이성이 인류를 종교적 편견이나 주관적 진리로부터 해방시켜 계몽된 삶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낙관적 비전을 널리 퍼트렸다.

하지만 근대 계몽주의의 비전은 이성 역시 신앙 못지 않게 독단적일 뿐 아니라 모든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해 더욱 억압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빛을 잃기 시작했다. 급

기야 계몽으로부터 계몽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었다. 이성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정의와 평화를 이룬다는 기획 역시 다양한 비판에 부딪쳐 허구성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근대문화의 기초인 이성적 통일성의 이념이 무너지면서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세력을 확장하는 빌미가 되었다. (Bauckham, 2004=강봉제 역, 2010: 21, 24)

한편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간적 거리가 좁혀지고 분리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이른바 “지리의 종말”도 다원주의 확산에 크게 일조했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헬레니즘과 근대 지리상 발견으로 인한 지평확장들도 사상적으로나 문화적 다원주의상황을 가져와 지배적 세계관에 위기를 불러온 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역사적 전례도 20세기 후반에 정보화가 가져온 세계화와는 규모나 심도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국경이나 산과 바다는 물론이고 이념적 장벽조차도 문화의 이동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 사회 안에 여러 문화와 관습이 뒤섞여 다원주의 사회가 도래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문화혼종현상”은 선진국의 대도시뿐 아니라 오지의 원시부족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 결과, 세계 어디서나 전통적 사회문화의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다원주의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정보화는 정신적 지형도 바꾸어놓았다. 정보화가 문화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리오타르는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을 정보화시대의 특징이라 했다. 체계화되고 보편성을 지향하는 지식과 달리 정보는 파편화되어 비인격적인 기억장치 속에 저장되어져 임의로 도출되거나 취합되어 질 수 있는 무엇이 되었다. 정보의 이러한 성격은 객관적 보편성 주장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과 학문에 기반을 둔 근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근대적 이성주의 통일성에 반발한 포스트모던적 비판의 결과는 세계관의 다변화에서 그치지 않았다. 오늘의 다원주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통하던 “설득력의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피터 버거는 이를 “종교적” 위기로 파악한다. 전통적 종교뿐 아니라 궁극적 헌신과 삶의 조망을 형성하는 기초인 세계관들 모두가 지난 날 누리던 권위를 상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Berger, 1970=김쾌상 역, 1979: 74-77) 전통적 구심점의 파괴로 모든 사회적 심리적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하나의 종교와 이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다원적인 상황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공동체는 이단이 된다.” (Berger, 1970=김쾌상

역, 1979: 78; 참고 Berger, 1979=서광선 역, 1981)

이 “이단의 시대”에는 선택이 자유가 아니라 강제되는 상황에 이른다. 인본주의 운동이나 이념들은 실천적 운동과 공동체까지 구비한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까지 가세한 다원주의 다종교 상황이 사회문화 속 긴장과 갈등의 소지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전통적인 종교가 쇠퇴해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유사종교 집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은 과거와는 분명히 “뭔가 다른” 새로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Keller, 2008: xv)

이처럼 다원주의가 팽창하는 이면에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만들려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이데올로기로 부상한 것은 역설적이다.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주장처럼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된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는 근대성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벌(Hedley Bull)이 말하는 “신중세”(New Medievalism)일수도 있다. 이 세계화의 근본동인은 경제이다. 정치적이기보다 경제적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 중 돈이 될만한 것은 가차 없이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다양성이 본질이며 생명인 문화마저 획일화되는 중이다. 포스트모던은 이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볼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세계화의 압박과 이에 맞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다양한 집단의 저항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미디어가 이끄는 보편주의 문화가 전통적이고 특수한 모든 것에 위협이 되므로 전통 문화와 종교는 지역주의와 파편화로 저항한다. (Friedman, 2000: 76-99, 496, 511-515) 특히 9.11 사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바 헌팅톤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문화충돌”이나 헌터(David Hunter)나 크래프트(Peter Kraft)가 말하는 “문화 전쟁”이 그것이다.

Ⅲ. 다원주의 담론의 한계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여성, 흑인, 동성애자 같은 특정 이해집단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정체성 정치”가 난무한다. (Eagleton, 2000: 38, 41-43, 76, 122) 인권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특수 이해집단의 정치적 권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정신 속에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지난 날 이성의 보편성 주장에 밀려 배제 당하거나 소외되었던 특수성, 다양성, 이질성의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바람 잘 날

이 없다. (Bolt, 1993=이정순 역, 2013: 60-61) 오늘날 정치와 사회문화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의 극복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거기에는 다시금 이성적 통일성을 삶의 토대로 회복시키려는 신계몽주의로부터 오히려 그것의 해체와 분산을 통해 사회문화적 다원성을 고취하려는 포스트모니즘에 이르는 다양한 제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물론 공통적 관심사는 어떻게 평화로운 공존을 담보할 것이냐이다. 특히 적어도 공적영역만큼은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지대로 만들어 구성원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제안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 제안들은 대체로 지난 날 독단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종교뿐 아니라 형이상학도 공적담론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일치한다. 종교나 철학은 개별 신앙이나 이론을 객관적 진리인양 설파하거나 입증하려는 노력 대신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방안 모색에 협력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늘날 사회문화적 담론에서 종교와 특정 형이상학에 뿌리를 둔 깊고 “두터운” 이론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존 롤즈의 정의론은 “선에 대한 열은” 의식의 증진을 통해 민주사회의 존속을 담보하려는 기획이다. 시민사회가 “가능한 적은 수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와 “열은 도덕”(thin morality)에 서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버트 우스노우드 같은 생각이다. 이들은 비록 모든 가치를 똑같이 옳다 보거나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차이들에 대해 관대한 “순한 상대주의”(mild relativism)가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기초라는데 동의한다. 오늘의 미디어는 정세도가 높은 “뜨거운 의사소통”이 아니라 찬 것이어야 한다는 마살 맥루한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마이클 노박은 한 사회의 중심인 성소는 비워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그곳이 경외심을 품은 자유로운 양심을 통해 접근해야 할 초월의 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 광장은 벌거벗은 공간(naked public square)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리처드 노이하우스는 이를 세속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이론가들의 주장만이 아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퍼져 있는바 “공적 세계의 문제에서 종교와 종교에 기반을 둔 가치관을 배제한다는 정치적 교의 또는 관행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Neuhaus, 1984: vii.)

문제는 공적광장이 이들의 주장처럼 빈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간혹 사회문화적으로 과도기엔 공공의 성소가 비어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은

본질적으로 “채워지기를 간청”하는 성격의 장소이다. 그 진공은 공적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국가나 기업과 미디어에 의해 채워지기 일쑤다. 이 경우 “벌거벗은 광장”은 이들의 무대가 되고 만다. “종교의 폐지라는 잘못된 개념은 국가를 교회화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다. (Bolt, 1993=이정순 역, 2013: 84) 특히 사회적 영역에 갇힌 교회는 국가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이나 미디어와 같이 공적 광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구들을 견제하는 “대항세력”이 될 수 없다. 다윈주의가 “새로운 전채주의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가볍게 지나칠 것이 아니다.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경우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악화된다. “배타주의적 종교의 악령”을 내쫓아 깨끗이 청소된 광장은 처음보다 더한 일곱 귀신을 불러들인다. 현실의 공적 광장은 결코 비어 있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그곳은 언제부터인가 인종, 계급, 성적 취향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개인과 집단의 문화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학문이 비록 절대적 판단을 제공하지 못할지라도 “충분한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검증을 통해 이런 갈등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최선의 바람일 뿐이다. (Wuthnow, 1996: 92-93= 정재영, 이승훈 역, 2014: 166-9) 학문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비평”으로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정체성 정치에 함몰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Thieslton, 1995: 135)

다윈주의가 매력적으로 비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사회는 흔히 소수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주의적 이념 아래 다양한 집단의 공존의 비전은 “다윈주의를 위한 다윈주의요,” “모자이크의 광기” 또는 “비전 없는 공존”일 뿐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Bolt, 1993: 105=이정순 역, 2013: 76) 더욱이 집단이기주의의 충돌 상황이 모든 권리 관점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식의 상대주의와 맞물릴 경우 어떤 사회적 합의도출도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곤 한다. 이런 우려로 인해 오랜 기독교 전통과 근대 이성주의 문화의 폐단을 경험한 서구에서도 포스트모던적 다윈주의에 대한 평가는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전통이 없고 근본적으로 종교다원적 바탕을 가진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알빈 프랜팅가의 말처럼 “다양성의 과도한 배양은 심한 불관용”으로 떨어지곤 한다. 다윈주의가 “관용과 지적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주 드러난다. (Piercy,

2010=홍종락 역, 2015: 71) 다원주의도 사실은 하나의 독단적 도그마다. 이점은 유독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세속화 사회의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관용이 기독교에 대한 불관용을 정당화하는데 쓰이는 아이러니도 마찬가지다. (Percy, 2010=홍종락 역, 2015: 81)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 맞서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과 견해를 달리 오히려 정세도가 높은 “뜨거운 의사소통”을 통해 복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chaeffer, 1985: 106, 110)

IV. 교회 내에 침투한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교회에도 침투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다원주의는 전통적 선교를 원칙상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극도로 약화시킨다.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사상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기도 한다. 모든 종교가 같은 신과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물론이고 타종교의 부분적 진리성이나 진리의 복수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복음의 유일성을 침식하여 선교 열정을 잠식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다.

교회에 들어온 다원주의는 여러 형태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작은 진리들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므로 독단을 버리고 타종교의 진리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하나이다.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지만 기독교가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포괄주의도 있다. 비교적 근래에는 이제껏 타종교를 개종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세계종교간의 대화의 필요성 주장이 대세이다. 지구촌의 사회문화환경에서는 종교 간의 이해와 평화공존이 필수적 덕목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상호 이해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주장이다. 보다 대중적 차원에서는 교회를 소비자적 자세로 고르는 태도도 다원주의의 영향의 일면이다.

둘째, 다원주의만 아니라 다양성 자체가 문제인양 무조건 배격하는 태도는 또 다른 폐착을 가져온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이런 배타적 태도는 선교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다른 이들을 개종의 대상으로 보거나 심지어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종교가 원인이 된 분쟁들을 나열하며 왜 종교간 관용이 필요한지를 강변하며 압박하는 빌미를 주곤 한다. 기독교인들은 대

체로 이런 비난과 압박에 대해 반발할 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오히려 기회주의적으로 일관성 없이 행동함으로 신앙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적으로는 신앙 진리를 계시로 믿고, 공적으로는 심미적 의견이나 잠정적 이론인 듯 행동하라는 소심한 권고가 압박에서 벗어날 지혜인양 제시되기도 한다. (Cuddihy, 1978: 108) 이 모두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일이다.

다원주의 문화의 압박은 또한 흔히 기독교인들을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놓아 적전분열의 우매를 야기시킨다. (Newbigin, 1995=박삼종 역, 2013: 11-12) 전자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열정이 있고 후자는 관용과 문화적응에 강한 나름의 장점이 있다. 문제는 서로 약점만을 부각시켜 다투기 시작할 때다. 이런 내부분열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초래할 뿐이다. 다원주의에 대한 바른 대처는 관용이 다원주의 이념에 함몰되거나 정통이 “오만과 반계몽주의”로 전락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있다. 보수적 교만이 정통의 위협이라면 진보의 함정은 무모한 방만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지난 2천 년간 전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왔다. 교회의 출발점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방언은 모든 언어를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바꾸는 기적이 아니었다.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 적응을 통해 만방에 소통될 일에 대한 예고였다. 그것도 각 나라와 방언을 통해 상황화되고 토착화된 문화 적응을 통해서 보편적 구원의 진리 소통이라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유대의 벽을 넘어 이방 그리스-로마 문화를 거쳐 열방으로 나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현재 기독교는 “2천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집단”의 신앙이다. 이것은 오순절이 역사상 세계 전역에서 수없이 재연되었음을 의미한다. (Pearcy, 2010=홍종락 역, 2015: 45) 기독교가 품은 역사적, 문화적 다양성은 실로 엄청나다. 기독교는 실제로 가장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종교이다. 기독교 신앙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음은 역사적으로 실증되었다. (Bauckham, 2004=강봉재 역, 2010: 26)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성공적인 문화적응과 엄청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한 것은 로마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원주의 속의 한 종파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Pearcy, 2010=홍종락 역, 2015: 58)

한국교회도 백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 세계교회가 거친 과정을 압축적으로 통과하며 다양한 문화갈등과 적응을 경험했다. 우리의 문화적 토양은 사머니즘에서 진보이념

까지 수천 년간 누적된 종교다원적 역사이다. 그간 종교간 갈등이 적었던 것은 “유불선(도)교의 삼교일치론” 같은 동양 특유의 종교다원적 환경 때문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다문화 사회에 들어선 지금은 그런 전통이 지속될지 낙관할 수 없다. 특히 종교편향시비는 이런 우려를 높여준다. 그 외에도 교회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이해 충돌에 쉽사리 휘말리거나 이념 갈등에도 깊은 성찰없이 휩쓸리곤 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일은 다원주의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교회는 보수성, 독단과 획일성, 도덕적 실패의 결과가 복음전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더욱 뼈아프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왜 교회가 지배적인 특정 이념이나 정치경제적 프로젝트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잘 보여준다. 다원주의 분위기로 인해 다양한 공동체들이 공적 광장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진 현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물론 관건은 다원주의 시대정신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확신을 독단적이지 않은 태도로 설득력있게 공적 영역에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이다. 공적 광장에 진입할 기회가 많아진 것은 분명한 지금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힘이나 정체성 정치의 힘이 아닌 십자가 진리에 기초한 구별된 메시지와 그에 부합한 소통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더욱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문화와 상황 속에 축적된 역사적 기독교의 문화적응의 자산과 지혜를 되살려 실천할 필요가 절실하다.

V.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뿌리인 칼빈주의 전통은 비교적 그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는 좋은 역사적 선례를 제공한다. 그것은 칼빈주의 전통이 종교개혁 당시부터 다른 개신교파에 비해 유럽 전역에 흩어져 넓게 분포했던 지리적 여건의 덕택이다. 아울러 특히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이 전통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전통이 있던 나라들의 대도시들에서 다문화적 적응의 역사적 경험이 풍부했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그 결과 이 전통에는 일반은총론이나 영역주권사상 같은 다원주의를 대처하는데 유용한 신학적-철학적 자원이 풍부하다.

우선 이 전통은 역사를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따라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이라는 다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칼빈과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은 다른 종교나 세계관을 가진 이들과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열린 태도를 갖게 할 신학적-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창조질서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확신은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에 대처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동시에 그것은 삶의 구조적 다양성 분석과 이에 근거한 비토대주의적 인식론을 가능하게 만들어 삶의 다원적 성격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세계관의 다원성과 구분할 근거도 제공한다. 특히 창조에 내재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 이를 존중하지 않는 환원주의나 전체주의를 비판할 기초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서 비롯된 칼빈주의의 사회문화적 비전은 근대 이성주의적 토대주의의 문제점을 꿰뚫어 비판함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보다 선구적이었다. 창조질서의 규범성과 다양성에 대한 바른 이해는 흔히 정치사회적 비전에 왜곡을 가져오는 각종 환원주의나 상대주의를 극복할 기초를 제공한다. 사회와 문화의 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영역과 조직체의 다원성에 대한 이해 또한 근대적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 같은 이원론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정, 학교, 예술, 경제 등 삶의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분립과 주권을 보장하는 통찰이다.

삶의 비전 즉 세계관의 다양성이 종교적 뿌리에서 비롯됨을 밝힌 것은 더 중요한 기여다. 세계관 사이의 대립을 강조할 뿐 아니라 창조질서에 기초를 둔 조직체적 분화과정에서 영역간 분립구조 강조하는 조직체적 다원주의(associational pluralism)는 국가적 전체주의에 반대하여 다양한 영역의 분화를 보존시키려는 것이다. (Griffioen and Mouw, 1993: 126-128) 이는 국가에 대한 것이지만 경제에 의한 환원적 자세에 대한 비판으로 전용 가능하다.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고유한 본질과 독립된 주권을 가질 뿐 아니라 종교적 비전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통찰은 거기서 나온다.

나아가 이 통찰에 따라 학문이 이성적 탐구라는 공통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왜 유물론과 유신론적 방향으로 대립되는 이론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종교적 비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대한 통찰은 사회 발전을 생태적 원리에 순응 또는 기계론적 원리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사회학자들의 일반적인 오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도태시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유란 이에 순응하던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불가피성 이론”(inevitability thesis)을 극복할 기초가 마련된다. 도예베르트는 이를 토대로 윤리적 확신이 사회제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회학적 비판론을 극복했다. 즉 경제나 정치, 학문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방향적 다양성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다양성의 근거는 이성적 선택이 아닌 종교적 선택의 결과임을 규명해냈다. (Wolterstorff, 1995: 213)

개혁주의 전통의 또 다른 유익은 근래에 들어 이런 기초 위에서 다원주의 문제를 다룰 방안들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날 칼빈주의 전통이 신학적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자칫 독단적인 면모를 보여온 사실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 자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Mouw, 1992: 11-12, 145-155=홍병룡 역, 2004: 15-16, 165-176) 여기에는 정체성 정치의 문화전쟁이 벌어지는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른 세계관을 지닌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분명한 의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양한 집단이기주의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타자들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항상 위태로운 불안정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에 대한 공통적 강조는 바로 이런 인식의 발로이다.

한편 바로 이런 상황이야말로 전시대 개혁주의자들이 보여준 “지적 상상력과 영적 용기”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식도 강하다. 아울러 그들이 보여준 특별한 관용, 겸손, 개방성 같은 사회적 덕목과 시민적 교양도 더욱 두텁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적 도덕적 덕목이 우리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살림의 문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이들은 바로 이런 인식하에 다원주의 사회의 문화적 현실에 대한 섬세한 연구의 결과로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제시하고 있다.

다원주의의 본질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구조적 다원주의와 방향적 다원주의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에 따라 기독교적 전략을 원리에 따라 제시하는 산더의 노력이 좋은 예이다. 월터스토포프가 창조의 객관적 실재가 요구하는 “책임있는 관점주의”(responsible perspectivalism)를 규명하여 작동하게 할 인식론 개발의 필요를 강조한 것은 또 다른 예이다. 그는 “대화의 정언명령”(dialogical imperative) 즉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그를 인간으로 대접하는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Wolterstorff, 1995: 213-214) 이런 정신은 자유주의가 성취했다고 하지만 실은 성경과 기독교의 유산으로 우리가 그것의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이를 “지분찾기”(Verzuiling, Pillarization)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다원주의 전략을 통해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구현한 바 있다.

VI. “선교적 관점” (missional perspective)의 교훈

지난 세기 후반에 대두된 “선교적 교회 운동”(missional church)은 선교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크게 확장시켰다. 이 운동은 선교를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종말론적 시야에서 바라보는 보편사적 시각을 가진다. 거기엔 우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비전을 따라 나가고 있다는 역사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언제나 다른 세계관들과의 만남과 경쟁 속에 복음을 전하며 종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운동은 전통적 선교와 교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선교를 단지 타 문화권의 미전도 지역을 향해 나가는 복음의 지리적 확장에 국한시켜 생각했다. 이로 인해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창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삶의 전 영역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다. 특히 해외선교는 힘썼지만 자신들이 기독교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 결과 서구가 세속화로 선교지보다 더 심한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버렸다. 이 사실은 기독교가 개인적 영성과 교회로 국한되고 축소될 경우 선교적 열정과 정체성 소멸을 겪는다는 중대한 교훈을 남겼다.

이 운동은 선교의 인식 지평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야로 확대시킨다. 복음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구약에서 시작하셨기에 선교에 역시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교회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은 공동체라는 의식에 입각해 선교를 다시금 생각한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조적 사회”(contrast-society)로 민족주의적 배타주의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사랑의 빛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종말론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이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 기초한 점에서 다원주의 대면에 유리한 통찰들을 담고 있다. (Goheen, 2011: 4, 20-21, 208-210)

우리시대가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언급하기 진부할 정도라고 주장한 뉴비긴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도덕적 충돌을 넘어설 방식은 성경과 역사에 입각해 선교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구속사에 입각한 성경 특유의 세계관에 입각한 선교와 교회 이해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보여줄 유일한 해석학적 렌즈라고 한다. 이 모델은 선교와 교회를 역동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선교적 관점을 제시한 학자들은 역사를 분석하는 철학적 안목이 개혁주의 세계관과 닮았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복음을 소통하는 동시에 타협 없는 증거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모색하는 점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 서구가 세속화된 과정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안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구 역사, 문화, 철학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토대로 지난날의 선교와 교회론의 약점을 보완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선교적 관점의 또 다른 통찰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시대에 부합하는 복음과 선교를 이해하려고 한 록스버그의 이른바 “미셔널” 관점에서 나온다. (Rougxburg, 2011: 72)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로마 제국에 흩어진 작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그들이 처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복음에 입각한 자신감을 갖고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공동체들은 기대와 달리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중 계속되는 핍박의 위협을 직면하며 살았다. 그들은 사도들과 1세대 지도자들이 죽은 후 종말론적 기대와 승리주의적 환상이 깨어져 혼란에 빠진 소수의 공동체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재해석하는 눈을 얻어 열방으로 나갔다.

록스버그는 또한 뉴비긴과 보감을 따라 선교적 관점이 신약성경의 예견된 일종의 과장된 관점이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변증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Newbigin, 1978=홍병룡 역, 2012: 22-23; Bauckham, 2004=강봉재 역, 2010: 46; Rougxburg, 2011: 74, 96) 예견된 종결과 영원한 개방성의 변증법이 교회를 선교적 상황아래 위치시키고 선교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선교는 특수에서 보편으로 모든 다양성을 휩쓸어가는 종교적 동질성의 거센 파도가 아니다. (Bauckham, 2004=강봉재 역, 2010: 29) 선교의 핵심은 다른 메타 내러티브와 달리 힘과 지배의 방법이 아닌 사랑과 화평 정의를 내세우며 다양성을 품은 보편적 이야기로 특수한 시점에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이 보편적 덕과 유익을 위해 성립되는 구속사이다.

이처럼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시야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회는 중세초기까지도 그들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강력한 로마문명과 이슬람 세력 앞에 생존을 위협받던 연약한 공동체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선교가 본질적으로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뉴비긴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

리는 이 시각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강조한다. (Newbig, 1978=홍병룡 역, 2012: 20-23) 이처럼 선교적 교회운동가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교회들과 중세 초기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을 조명해 근대이래 줄곧 서구교회의 시각에 의해 왜곡되어온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을 통찰을 제시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반기독교적 다원주의 문화에 부합한 선교적 교회론의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교회중심주의를 버리고 사회, 열방 다음세대로 흩어져 침투하는 교회론이 요구된다. 누가와 사도행전처럼 선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교회는 오늘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며 선교적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서구교회가 “사회적 소수”로 의식한다면 한국교회는 더욱 그렇다. 특히 한국교회는 다원주의와 반기독교 정서의 문화 속에서 현재 처지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화기 이후 기독교가 잠시나마 누렸던 문화적 우위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대화 개발경제와 군사독재시대에 개발된 교회성장과 해외선교라는 단순 모델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특히 정권친화적 자세나 경제적 기득권 편에 공조하는 고도성장의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이야기에 편승 또는 포섭된 선교를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이제는 소수임을 인정하는 겸허함으로 섬김과 대화를 통한 변혁적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위기를 맞고 있는가는 단순히 윤리적 실패보다는 선교적 관점의 상실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누구이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Ⅶ.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선교적 관점의 만남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사회문화적 비전은 근래에 부상한 선교적 관점으로 강화될 때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 역시 창조-타락-구속을 마치 초시간적인 신학적 범주로 인식하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완성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살피지 못하는 경향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창조-타락-구속이 신학적 범주로 굳어져버리는 부작용과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철학 이론처럼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 나온다. 아울러 선교적 요소가 약화되기도 한다.

근래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려는 이

른바 “내러티브”식 접근이 제시되었다. 바로 여기에 선교적 관점이 세계관 논의에 기여할 내용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 보여주는 창조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역사성이 살아나야 온전한 삶의 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시간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즉 문화와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망하는 선교적 관점은 기독교 세계관을 추상적인 논제가 아닌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삶의 비전이 되도록 만든다.

아울러 개혁주의 전통은 시민적 교양의 폭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 역시 선교적 관점은 도움이 된다. 선교적 정체성의 회복을 회복한다 해도 기독교가 더 이상 서구사회에서조차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에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오늘의 사회를 지배하는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복음에 신실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적인 장에 나가면 압박과 고난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신앙을 개인적인 일로 만드는 것은 복음의 우주적 범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이 바로 서구교회가 지난 수세기 동안 범한 실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공적이며 우주적(communal and cosmic)인 삶 속에서의 증인의 소명을 회복해야 한다.

이 관점에는 또한 우리는 증인일 뿐 재판관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있다. 복음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증언도 개인적이며 실존적인 한계가 있음도 인정한다. (Newbigin, 1995: 94) 증인의 의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받은 메시지를 이해하여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보편성을 확고히 주장하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통해서 강요하려 하지 않았던 사실을 중시한다. 그럴 상황도 아니고 힘도 없었다.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 낮은 섬김의 자세를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을 정복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교를 개종이라는 결과주의에서 보기보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증언이며 종말론적 비전에서 신실하게 수행할 따름이다.

선교적 관점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이다. 아직 종료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 확실성이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 인식은 독단을 방지하고 다른 종교와 세계관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림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런 종말론적 비전에는 커디히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시민적 교양의 시련”(ordeal of civility)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이 들어있다. (Griffioen and Mouw, 1993: 6, 173-176; 참고

Cuddihy, 1987: 235)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 종교나 이념이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세련되거나 좋은 매너, 선량함과 중용을 필수적인 덕목으로 꼽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에겐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내재된 덕목들이다. 특히 지금처럼 그것이 절실한 때에 이를 도외시하면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신성한 특성에 배치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Griffioen and Mouw, 1993: 65)

오늘의 문화 속에서 교회는 이런 선교적 관점과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라는 조직체로서가 아니라 배타적이지 않은 대안적 공동체로서 문화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럴 때에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의 세계관의 실체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 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선교적 관점은 지난 날 위대한 신앙인들이 보여준 역사적 모범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아울러 소위 성공적인 교회가 자주 빠졌던 승리주의 환상을 반성케 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엔 왜 패배주의로 위축될 필요가 없음도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의 도전 앞에 방어적인 태도로 뒷걸음쳐서는 안될 이유도 가르쳐준다. 왜 사회문화적 책임을 버리고 개인적 영성에 몰입하는 퇴행을 택하는 일은 하면 안되는지도 알려준다. 교회는 지난 이천년간 다원주의 상황에 주저 없이 들어가 정면돌파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개혁주의 전통이 그 좋은 예이다. 소수지만 탁월한 통찰과 자신감을 갖췄던 대안 공동체의 선교적 비전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되어야 한다.

VIII. 결론

오늘의 글로벌 다원주의 문화는 흔히 기독교에 위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특히 본래 종교다원적 역사 위에 첨단 정보화 사회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의 상황 아래 각종 사회문화적 정체성 정치로 긴장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다원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가 절실하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만은 아닐 수 있다. 이 시대의 글로벌 다원주의의 도전이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전시대의 뛰어난 기독교 지성인들이 보여준 성경적 통찰과 지혜를 되살릴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다행히 오늘날 다원주의 분위기로 인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특히 신앙과 학문의 대립이 크게 완화되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할 기독교 학문의 위상도 높아졌다. 다양한 세계관이 난무하는 상황일수록 기독교 학문의 사명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사회문화적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있어 더욱 중요해졌다. 기독교 학문이 신학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구원의 진리가 세상문화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진리에 입각한 “적절한 자신감”과 다원주의 사회에 걸맞는 “탁월한 예절”과 더불어 “지적 세련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원주의는 오늘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기독교 학문에 주어진 기회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Bartholomew, Craig G. and Goheen, Michael W.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Baukhham, Robert (2010). *Bible and Mission: Christian Witness in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강봉재 역. 『세계화에 맞서는 기독교적 증언: 성경의 눈으로 선교 바라보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 Berger, L. Peter (1970). *A Rumor of Angels: Modern Society and the Rediscovery of the Supernatural*. Garden City: Anchor Press.. 김쾌상 역 (1979). 『현대사회와 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1979). *The Heretical Imperative: Contemporary Possibilities of Religious Affirmation*. Garden City: Anchor Press.. 서광선 역 (1981).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Bolt, John (1993).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Grand Rapids: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이정순 역 (2013). 『이야기가 있는 학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Cuddihy, John Murray (1978). *No Offense: Civil Religion and Protestant Taste*. New York: The Seabury Press.
- _____ (1987). *The Ordeal of Civility: Freud, Mark, Levi-Strauss, and the Jewish Struggle with Modernity*. Boston: Beacon Press.
- Eagleton, Terry (2000). *The Idea of Culture*. Oxford: Blackwell.
- Friedman, Thomas (2000).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Understanding Globalization*. New York: Anchor Books.
- Griffioen, Sander and Mouw, Richard J. (1993). *Pluralism and Horizons: An Essay in Christian Public Philosophy*. Grand Rapids: Eerdmans.
- Goheen, Michael W. (2000).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J. E. Lesslie Newbigin's Missionary Ecclesiology*. Zoetermeer, Netherlands: Boekencentrum.
- _____ (2011). *A Light to the Nations: The Missional Church and the Biblical Sto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Hunter, James Davidson (1991).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Books.
- Huntington, Samuel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Keller, Timothy (2008). *The Reason for God: Belief in an Age of Skepticism*. New York: Riverhead Books.
- Kreeft, Peter (1996). *Ecumenical Jihad: Ecumenism and the Culture War*.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 Locke, John (1964).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London: Collins.
- Mouw, Richard (1992). *Uncommon Civilit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Dowers Grove: InterVarsity Press. 홍병룡 역 (2004). 『무례한 기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양』. 서울: IVP.
- Martin-Achard, Robert (1962). *A Light to the Nations: A Study of the Old Testament Conception of Israel's Mission to the World*. Translated by John Penney Smith. London: Oliver and Boyd.
- Neuhaus, Richard (1984). *Naked Public Square: Religion and Democracy in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 Newbiggin, Lesslie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홍병룡 역 (2007). 『다원주의 사회내의 복음』. 서울: IVP.
- _____ (1978). *Open Secret*. Grand Rapids: Eerdmans. 홍병룡 역 (2012). 『오픈 시크릿』. 서울: 복있는 사람.
- _____ (1995). *Proper Confidence: Faith, Doubt, and Certainty in Christian Discipleship*. Grand Rapids: Eerdmans. 박삼중 역 (2000). 『타당한 확신: 기독교 제자도의 믿음, 의심, 그리고 확실성』. 서울: IVP.
- Pearcy, Nancy (2010). *Saving Leonardo: A Call to Resist the Secular Assault on Mind, Morals, and Meaning*. Nashville: H&B Publishing Group. 홍종락 역 (2015). 『세이빙 다빈치』. 서울: 복있는 사람.
- Rougxburg, Allen (2011). *The Missional*.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_____ (2005). *The Sky is Falling?* Eagle: ACI Publishing. 김재영 역 (2009). 『길을 잃은 리더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Schaeffer, A. Francis (1985).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aton: Crossway Books.
- Thiselton, Anthony (1995). *Interpreting God and the Postmodern Self: On Meaning, Manipulation, and Promise*. Edinburgh: T&T Clark Ltd.
- Wright, Christopher J. H. (2006).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Wolterstorff, Nicholas (1995). "From Liberal to Plural," In Griffioen, Sander and Balk, Bert M. eds., *Christian Philosophy at the Close of the Twentieth Century: Assessment and Perspective*. Kampen: Uitgeverij Kok: 201-214.
- Wuthnow, Robert (1996).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The Contemporary Debate*.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정재영, 이승훈 역 (2014). 『기독교와 시민 사회: 현대 시민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역할』. 서울: CLC.

ABSTRACT

Missional Encounter with the Challenges of Our Global Pluralist Culture

Kuk-Won Shin (Chongshin University)

Global pluralist culture, a dynamic force of change in today's socio-cultural geography, presents complex challenges to the Christian faith - especially to mission work. However, Christianity has had much experience in dealing with many similar situations over the last two thousand years of evangelizing in various cultures. The cultural insight and wisdom accumulated through mission work during this period should be regarded as a great resource in coping with the challenges of today's global pluralistic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recovery of this wisdom is a key element in "missional encounter" with our pluralist culture. It also intends to demonstrate that integrating tradition of Christian worldview and the recently emerging "missional ecclesiology" could create an effective missional encounter with the challenges of our global pluralist culture.

keywords : Pluralism, missional perspective, Christian worldview, civility, Christian scholarship